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9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 하지 않는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 법정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4 / 9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
처음 마음으로	08	네 가지 相을 버리면 열반을 성취한다.
특별기고	13	교황을 보낸 후 달라이 리마를 기다린다.
내 마음 속 풍경	16	76세 친정엄마가 돈을 버는 이유
책 속의 책	20	식물의 신비생활
샌디에고 암탉	22	희망 줄기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6	아름다운 마무리 - 박정석 어르신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28	인연
친잔난만	31	욕심
참교육 이야기	32	가난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못가요"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6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의 즐거움
사색의 뜰	40	우리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외국인
향기나는 우체통	43	향기로운 수련 꽃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6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9월 1일 발행 / 통권 235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정은, 염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가

글·법 정(法 頂)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옛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는 뜻이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서로가 닳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구성원들 각자가 따로따로다.

흔히들 말하기를, 집(가옥家屋)은 있어도 집안(가정家庭)은 없다고 한다. 가정의 본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해와 사랑으로 엮인 영원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의식이 소멸되면 썰렁한 집만 헛헛그렁하게 서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혼이 나가버린 육신과 같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된 근원을 추구해보면 가옥만 남은 가정의 부재에 까닭이 있을 것 같다. 이해와 사랑이

있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비행이나 탈선에 물들 위험이 적다.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없으면 우리를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곳, 우리가 죽으면 통곡하는 곳,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다.

이런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일찍이 농경사회에서는 이런 위협이 적었는데, 일터가 집 안이나 농경지가 아닌 산업사회의 냉혹한 기구로 옮겨지면서 그 위협이 가속화되었다.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딸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끼리 마주앉아 차분히 속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없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해라, ~하지 말라’, ‘~해 달라, 싫다’ 등 일방적인 명령이나 요구와 불만의 표시만 있지, 거기에 이해와 사랑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딱딱하고 무표정한 집만 버티고 있을 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재미없는 집에 머무르려고 할 것인가. 자연히 밖으로 나돌 수밖에, 밖에 나가 유유상종, 같은 무리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에도 빠져들기 십상이다.

오늘날의 가정은 한낱 숙박소로 변모되어 간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다. 식사시간도 각각이고 밖에서 돌아오면 저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나 TV 아니면 전화에 매달려 지낸다.

해체되어 가는 가정에 활기를 되

찾게 하려면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서 의식적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사랑스런 자식을 기르려면 먼저 사랑스런 부모가 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부끼리 혹은 집안 식구들 사이에 대화를 이루려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이다. 아내나 어린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대등한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해야만 온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방적인 훈계나 타이름은 결코 대화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듣는 가이다.

둘째,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한 집안에서 살아온 가족들이므로 오래 전부터 가까이서 지켜보아 온 관념 때문에 새로운 면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생각이나 몸이 굳어 있지만, 아이들은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낡은 자로 재려고 해서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으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지레짐작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더 따질 것도 없이, 우리 자신들이 어렸을 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완고한 부모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을 되돌아보라. 대화에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은 대화 아니다. 우리가 대화를 갖는 것은 우리 마음과 느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다. 나눔으로써 이해의 길이 열리고 풍요로워진다.

대화에는 이기거나 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상대방의 느낌을 받

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느낌이 받아들여질 때 바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의 느낌이 거절당할 때는 자기 자신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와 같은 느낌을 통해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유교적인 근엄 때문인지 칭찬과 격려의 말이 적다. 자식이나 아내 자랑은 못나고 어리석은 불출로 몰아붙였다. 우리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아도 꾸중과 야단을 맞았던 기억만 남아 있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다. 가족과 친지들에게서 듣는 칭찬과 격려의 말은 우리 삶을 이루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간과 친절과 관심을 기울일 때, 또는 집안

식구들과 우리 자신을 나눌 때, 그것은 결코 그날 하루 일어났다가 곧 잊혀지고 말 일이 아니다. 이 기쁨과 나눔은 평생을 두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신다. 오늘의 체험은 내일의 기억이 된다.

부부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가족 상호간의 관계가 이해와 사랑에 바탕을 둔 관계일 때, 그 가족이 이해와 사랑을 삶의 원리로 택했을 때, 이 이해와 사랑은 그 집안의 울타리

를 넘어 널리 퍼져 나간다. 이것이 사랑의 메아리다.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 이해와 사랑으로 열린 대화를 나눔으로써 차디차고 무표정한 집을 맑고 향기로운 집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1995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길상사 「부탄·카트만두 성지순례」 안내

부처님이 평생 걸으신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느끼고 또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또한 불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영광이자 평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길상사에서는 성지마다 부처님의 숨결과 숭고한 가르침이 깃든 불교 왕국 부탄과 카트만두로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순례 기간 : 11월 17일(월) ~ 11월 25일(화) / 7박 9일
- 동참금 : 370만 원
- 접수 : 9월 30일까지
- 문의 : 길상사 종무실 / ☎ 02.3672-5945



가 相

글 • 덕 운(德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제 잘난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망령되어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기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자기가 아니면 그 일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알력이 생깁니다.

미국의 한 재벌가였던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덕이 높고, 자기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모아줄 줄 아는 사람, 여

기 잠들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카네기야말로 자기가 거느린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카네기는 처세술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처세술의 요점은 “친절하라. 겸손하라. 호감 있게 보여라. 상대방의 이름을 잘 외워라.”는 것입니다. 이 처세술의 비법은 보살의 십중대계 제7에 있는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헐뜯지 말라.”는 계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잘못된 것은 남에게, 잘한 것은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불협화음만 조장할 뿐입니다. 서로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고 화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면 웃음과 평화가 생기고 서로 잘났다고 대립하면 불안과 파탄만 초래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를 높이지도,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유가(儒家)에서는 ‘어질 인(仁)’을 이야기 합니다.

이 인(仁)을 얻기 위해서는 겸양지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알 때 인(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벗과 친하고 벗과 화합하고자 한다면 서로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식 저 자식’하면서 지내는 욕친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공손한 말을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친한 친구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없는 말, 실없는 짓으로 서로의 믿음을 떨어뜨려 서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서로를 믿고 서로 양보하며 지내야 좋은 인연이 오래도록 보존됩니다.

“저 친구에게 맡기면 틀림이 없지.”
“저 친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리 없는데 바빠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서로 믿고 존경해주는 경신(敬信)이 선우(善友)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을 맺는 겸양과 경신을 버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살아가면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과는 외로움과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상(四相)을 이야기 합니다.

사상(四相)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입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의 사상(四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악도의 바다는 더욱 깊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상(四相)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통의 수렁에 깊이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상(四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상(我相)은 ‘나다’는 생각이 가득하여 제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내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고 하는 몸뚱이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은 차츰 낡아 부서지고 말듯이, 몸뚱이가 아무리 잘 생기고 튼튼하더라도 별 수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도 한 줌 흙으로 바뀌었고, 세상의 영웅호걸도 모두 죽어 한 줌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래되면 물질은 자연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정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천하는 생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는 잠시 머물다가 달라지고 사라져버리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나’, 그 ‘나’는 끊임없이 변하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무상(無常)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한 ‘나’를 대단한 것인 양 내세우면 고통만 따를 뿐, 수행에는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아상부터 없애야 합니다. 아상(我相)을 없애는 공부, 이것이 수행자의 첫째가는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탁발을 권장했고 부처님께서 직접 바리때를 들고 탁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아상(我相)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밥을 얻으러 간 사람이 거만한 자

세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이렇게 탁발을 통해서 하심(下心)이 되고 높은 아상이 꺾여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상이 없어지면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인상(人相)도 따로 내세울 것이 없어집니다. ‘나와 너’라는 생각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라는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중생상도 수자상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상도 강해지고 중생상, 수자상도 더욱 치성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강한 사람에게 빌붙는 약육강식도 중생상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지나친 애착심을 갖고 남을 이기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중생상입니다. 곧 미혹한 중생들의 소견으로 짓게 되는 모든 일이 중생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자상(壽者相)은 수명에 대한 집

착된 모습입니다. 몇 해 안 있으면 죽어 없어질 몸인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나는 오래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불로장생을 계획하는 것도 모두 수자상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익과 명예를 찾아 투쟁하고 생사에 얽매여 사는 삶,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모두가 ‘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아상(我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아상이 원인(因)이 되고, 인상이 연(緣)이 되어 생존투쟁의 업(業)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업이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그 업으로 말미암아 생사 속을 윤회하여 죽음의 공포와 목숨에 대한 애착 속에서 허덕이는 수자상이라는 과보(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인, 연, 업, 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상을 없앨 때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저절로 사라지

게 됩니다.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下心)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되고, 참된 봉사를 하는 내 마음은 그로 인해 저절로 편안해지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체 사람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하면 대복전(大福田), 즉 큰 복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탈의 비결이 있거늘, 사상산(四相山)을 자꾸 길러 괴로운 세계로 빠져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상을 다스리면 사상산이 점점 낮아지고, 사상산이 낮아지면 지옥, 아귀, 축생의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어 마침내는 해탈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상(四相)의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악도의 바다는 더욱 깊

어지느니라. 밖으로 근사한 모양을 내어 존귀한 듯 꾸며도 안으로 얻은 바가 없음은 썩은 배와 같나니,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을 더욱 겸손히 가져야 하느니라. ‘나’니 ‘너’니 하는 상(相)이 무너지는 곳에 무위(無爲)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무릇 하심(下心) 하는 사람에게는 천만 가지 복이 저절로 찾아드나니라.”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잘 났고, ‘너’는 별것 아니라는 아상(我相)이 무너지고 사상산(四相山)이 무너질 때 조각이 없는 진실한 도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고, 아상을 다스리는 하심 공부를 함으로써 많은 복을 지어 다른 사람의 복전이 되고, 구경에는 위 없는 열반을 성취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정진 하였으면 합니다.

- 불기 2558년 7월 초하루
(2014년 7월 27일)

- 편집자 주

머문 시간은 짧았지만 여운은 길었습니다.

25년 만의 교황 방문은 한국 사회에 교황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빈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국민의 환호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교황보다 약자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4박 5일 방한은 감동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억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제의에 달린 노란 리본에 감동했고, 실종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은 편지에 다시 감동했습니다.

장애인을 껴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밀양 송전탑 문제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용산 참사와 쌍용차 해고 사태로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위로해주었습니다. 당신에게 무릎 꿇은 수사와 수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겸손함과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 낮은 자세로 그들을 보듬고 껴안는 모습에 우리 사회는 감탄하였습니다.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정감 넘치는 모습에 대중은 도리 없이 빠져들었고, 100여 년 전 조선왕조가 모반의 무리로 처형한 124위의 명에 회복을 위한 광화문 한복판의 시복 미사는 거대한 해원(解冤)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또한,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의 성소이기도 했던 명동성당에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간절히 구

하는 강론이 펼쳐졌습니다. 25년 전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명 대미사를 집전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한국 가톨릭이 급성장했듯, 이번에도 교세가 크게 확장되리라 짐작됩니다. 어느 종교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대중들은 열광하게 되고, 그 종교의 위상도 한껏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불교의 달라이 라마입니다.

교황은 벌써 세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비폭력, 반전, 인권, 평화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는 아직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와 민족을 초월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 온 평화주의자입니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으며,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으며 미주, 유럽, 호주는 물론 일본에는 34번이나 방문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몽골과 대만까지도 방문했는데 유독 한국만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김치를 먹어 보고 싶다.”, “팔만대장경을 참배하고 싶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14대 달라이 라마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입니까?

세계적인 비폭력·반전·인권·평화 운동가이자 불교 수행자인 달라이 라마에 대해 정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민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이 라마의 입국 불허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 불교계 차원에서 당당하게 달라이 라마 초청을 공론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에 대한 굴종,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기에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일컬어지는 달라이 라마를 한국에서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섯 번에 걸친 공개적인 방한 요청으로 교황 방한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방한 준비위원회까지 꾸려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규모의 종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형평성 차원에서나 자주 외교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달라이 라마 초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인 문제로 부담스럽다면 정부 차원이 아닌 불교계가 추진하는 종교인의 초청

으로 종교, 문화, 평화의 행사로 진행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불교계 일각에서도 ‘외교적 이유로 세계적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자주성에 반하는 일’이라며 정부에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을 촉구하며 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와 생명의 가르침을 통해 반생명과 갈등의 사회를 치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교황이 오신 닷새간 많은 사람들은 심적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교황이 떠난 후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고, 현실은 또다시 냉혹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소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와 아픈 사람들을 만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교황님처럼 달라이 라마 또한 광화문 태평로에서 전쟁과 폭력, 권력과 가난, 각종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의 생명과 인권 회복, 자유,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뜨겁게 채워야 할 것입니다.

76 가

글 • 이정숙(수필가)

“너희들이 주는 돈으로 그러저럭 살면 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 공연히 서글프고 눈물도 났다. 다리가 어찌나 아픈지. 내 몸이나 잘 간수하면 다행일 나이에 내가 왜 이려고 사나 후회했지. 수시로 마음이 오락가락하더라. 한 달에 20만원. 가만있으면 그 돈을 누가 주냐? 발품 파니 그래도 다달이 20만원씩 들어 오잖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금방 또 마음이 바뀌지 뭐냐. 그만 뒤야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할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생겼다.

그러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벌써 녀 달을 넘겼으니 모두 합해 80만원 벌었다. 이젠 마음 굳혔다. 지금은 방학이라 쉬고 있지만 방

학 끝나면 또 하려고 한다. 내년에도 신청할 거야.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가 크거든. 비라도 오는 날은 혼이 쑥 빠질 것 같아. 그런 날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까지 몰려나와 함께 교통정리를 하지. 처음에는 미스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잘한다. 선생님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내게 얼마나 깎듯이 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그 돈 번다고 친구들에게 국밥도 한 그릇씩 사 주고, 일 끝나고 오는 길에 옷집에 들러 옷도 하나씩 사 들고 온다. 그런 일을 하니 입성도 깨끔해야지.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면 남 보기도 흉하잖나. 신발도 편하고 좋은 걸로 하나 샀다. 20만원이라고 해서 내 한 달 월급인데 싫어 잠시 망설였지만, 그 신발 신고 더 편

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으니 그것도 잘한 것 같다. 내 걱정은 마라. 내가 번 돈으로 손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며느리 용돈도 몇 푼씩 집어 주고.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하는 날까지 해 볼란다.”

친정엄마의 입장 연설이시다.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당신이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길다. 올해 일 흔여섯인 엄마는 몇 달째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돈을 벌고 계신다.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춰 나가 매일 한 시간씩 교통정리를 하시는데 내내 서 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능숙하게 하지 못해(엄마 말씀대로 '미스'가 많아서) 자존심에 상처도 많이 입으셨던가 보다. 그래서 갈팡질팡하셨던가 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밥은 먹고 사는데 왜 이 고생이나 싶으면 당장 관두고 싶다가도 그렇게 번 돈으로 옷도 한 벌씩 사 입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그릇씩 사주며 가끔 며느리에게 용돈도 집어주다 보니 그것도 참 보람 있고

기쁘더란다. 그러다 보니 이젠 마음 굳혔단다. 2학기에는 당연히 하겠지만, 내년에도 꼭 신청하시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펼치신다.

그야말로 당신 몸 하나 잘 간수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돈을 버느라 힘들어하시는 걸 보는 자식들 마음은 영 편치가 않다.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한 편으로는 엄마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오히려 엄마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만류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당신 수족처럼 사셨던 아버지가 불시에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엄마는 삶의 의욕을 잃고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더란다. 한 순간에 확 죽어버리면 좋을 일이지만 시름시름 아프다가 드러눕기라도 하면 어쩔까, 그럼 당신 자신도 괴롭겠지만 무엇보다 자식들 못할 짓 시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나더란다.

그때부터 엄마는 새벽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씩 운동장을 도신다. 그게 벌써 10년이다. 지난 봄, 친정 식구들이 모여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느 사찰 앞에 이르자 엄마의 품이 순식간에 경보선수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린 포복 졸도했다. 걷기 좋은 길이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신 것 같다. 주먹을 권손은 양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치켜 들려 있었고 겨드랑이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두 팔꿈치는 앞으로 뒤로 재빠르고 가볍게 움직였다. 자동이 었다. 10년 세월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걸었으니 몸이 먼저 반응할 만도 하다.

자존심이 강한 엄마는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유난히 싫어하신다. 또 누구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대충 면만 닦거나 흉내만 내지 않는다. 당신이 흡족할 만큼 하시는 것이다. 옷 하나를 사더라도 싸구려는 눈에 들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벌을 사더라도 메이커

아니면 안 입는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한 엄마의 성품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아들과 성묘를 다녀오면 아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 당신이 기름 값을 대고, 다녀온 다음 저녁 식사비도 앞장서 계산하신다. 자식들이 극구 만류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는 일부 떼어 며느리 용돈으로 건네준다.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뒤 베란다 쪽에 빈 병이 잔뜩 쌓여 있는 게 보였다.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주워 모은 거란다. 폐지를 줍지는 않지만 골목을 돌며 빈 병을 주워 모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청승스러워 보일 것 같아 다들 깜짝이나 놀랐다. '왜 그러냐. 용돈 부족하면 말씀을 하시라. 이 동네에서 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것도 자식이 여덟이나 되는 사람이 빈병이나 주우러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당장 그만 하시라'며 펄펄 뛰었다. 그런데 엄마의 변명이 가관이다.

“일부러 주우러 다니지는 않고 오 지난달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와 가는 길에 눈에 띄는 것들만 주워 손자들 용돈도 줬다. 내 몸 좀 힘들 오는데 그게 한 달이면 10만원이 된다. 그 돈으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유구무언이다.

약도 사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길 상 사

불교입문 29기 개강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초심자를 위한 불교입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개강 일 :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 * 응시자격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 수업기간 : 3개월 12주 과정
-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주간반 오후 1시 40분 /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 장 소 : 설법전
- * 수 강 료 : 7만원(교재비 포함)
- * 문의전화 : 교무실 02-3672-0036
종무소 02-3672-5945



최근에 나는 흥미 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식물의 신비생활> (피터 톱킨스·크리스토퍼 버드 공저)이다.

거기 보면 식물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것이다. 예쁘다는 말을 들은 난초는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볼품없다는 말을 들은 장미는 자학 끝에 시들어 버린다는 실험 결과를 신고 있다. 또 어떤 식물은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시끄러운 록 음악을 좋아한다고도 했다.

‘식물도 생각한다’, ‘인간의 마음을 읽는 식물’, ‘식물과의 의사소통’, ‘우주와 교신하는 식물들의 초감각적 지각’ 등 식물의 초감각적 지각에 대

한 최근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도 머리말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가 산에 가거나 나무나 꽃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차분해지고 아늑한 기분을 느낀다. 그것은 영적인 충만감에 젖어 있는 식물들의 심미적 진동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식물은 우리가 함께 기대고 있는 이 우주에 뿌리를 내린 감정이 있는 생명체다. 인간의 처지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식물이 지닌 영적인 영역을 놓치는 것이다.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 양식과 맑은 공기를 비롯해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유익한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자연과 교감을 하면서 살아온 미국 인디언들은 과로해서 기운이 달

리게 되면 숲 속으로 들어가 양팔을 활짝 벌린 채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그 나무의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내가 잘 아는 한 친구도 도시생활에 지치면 시골집에 내려가 집 뒤 소나무 숲을 찾아간다. 정정한 한 소나무에게 안부를 묻고 거기 한참을 기대어 속말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투명해지고 기운이 솟는다고 했다.

나도 불일암의 뜰에 있는 후박나무들, 잎이 다 지고 난 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나무를 쓰다듬고 안아 주면서 볼을 비비기도 하고 속엿말을 건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신뢰와 친근감을 우리는 서로 나눈다. 아, 이 겨울에 우리 후박나무는 별로 없이 잘 있는가?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제2부 식물의 왕국에 문을 연 선구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인도의 뛰어난 식물 연구가 찬드라 보스는 한 학술모임에서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진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막한 자

연이라는 거주지에는 저마다 문이 달린 수많은 통로들이 있다. 물리학자, 화학자, 생리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각기 다른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다른 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고집하면서, 이렇게 하여 우리는 지금 광물의 세계니, 식물의 세계니, 동물의 세계니 하면서 분야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들은 깨져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탐색의 목표가 전체적인 앞에 도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어떤 특수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을 위한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영역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것은 한 걸가지를 붙드는 일에 그치고 말 것이다.

- 범정스님 /
식물도 알아듣는다 중에서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어느 날 한국에 사는 지인이 불교 이야기가 담긴 월간지를 미국으로 보내주었다. 대낮에 도둑이 들어와 상심하고 있던 나를 위로하느라 선물해 준 책이었다. 반가워할 친정어머님께 갖다드렸다. 샌디에고는 절이 없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러스에 살았던 어머니는 이층의 친구 방에 들렀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샌디에고로 거처를 옮겨왔다. 책의 편집인들을 격려하고 싶던 어머니는 돈을 넣은 편지를 종종 서울 사무소로 보냈기에 내가 심부름했다. 이 소식이 법륜스님께 전해졌던 모양이다. 스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다. 몸이 편찮으신 어느 할머니를 뵙고 싶다는 말을 들어보니 내 어머니였다. 이런 묘한 인연으로 법륜스님의 미국 샌디에

고 순회법회는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9월이면 온 가족이 봉사했다. 당시 남편이 암 수술을 하고 살아나서인지, 그동안 무종교로 살아 온 나는 잠잠했던 불심이 일어났다. 작은 우리 집에서 여러분이 면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서암 종정스님이 오셨을 때는 호텔에 설법 자리를 마련했다.

살기 좋다는 나라, 미국에 와보니 한국인들은 언어의 불편으로 주류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장사하며 고단한 일꾼의 삶이었다. 또, 한국전쟁으로 가난의 한 때문인지 대부분 돈 벌기에 급급하며 살고 있어 허탈감도 왔다. 잘못하면 우리의 미국생활도 꿈꾸던 계획과 달리 아주 탄판이 될까 걱정되었다.

성인이 되고 나의 인생목표는 언제나 지혜로운 생활 철학과 삶의 질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미국의 동포들처럼 큰 집이나 값비싼 자동차가 아니었다. 주변에 동포들이 고생하여 살다 떠나던 마지막 모습들을 볼 때면 허망했다. 살만하면 세상과 하직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려면 왜 이민을 왔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곤 했다.

나도 이런저런 고통으로 몸무게가 8파운드나 빠졌고 일 년이 넘도록 위궤양 약까지 먹게 되었던 이민 초기였다. 길을 잘못 들면 무너지는 가정이 될 것이라며 고민했다. 남편은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픈 야망이 꿈틀거리 아프기 전까지는 두 개의 직장을 다녔기에, 모든 것을 떠맡던 나는 심신이 고달팠다. 미국법도 영어도 준비가 안 된 나에게 장사하라는 그의 주장을 따를 수 없었다. 말 다툼도 할 수 없기에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뜻밖에 남편은 대장암과 싸우게 되었다. 의학자에 의하면 암의 원인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한

다. 아, 삶의 역경. 또 다른 눈물의 세월이 나에게 닥친 것이다.

운이 좋아서일까. 긴 세월이 지나고 남편은 우리도 남들처럼 일에 빠져 살았다면 자신이 살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를 지혜롭게 뒤돌아보곤 했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내가 추천하여 다녔던 미국회사의 보험으로 큰 수술을 받고 살아났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저축통장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살아 온 내 결단에 그는 감사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 가족이 법륜스님을 만난 것이다.

언젠가 책 속의 법문 중에는 '자신의 한 생각 편견이 달라지면 나와 모든 주위가 편안해진다.'라는 말이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왔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걸림 없는 사람이 난 되고 싶었다. 내가 먹던 위장약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행복한 삶에 대한 답은 간단했다. 마음 바꾸기였다. 쉽지 않지만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했다. 무조건 남편을 이해하자. 그와 나는 개성이 다른 사람

이다. 그를 바꾸려고 기대하지 말자. 힘들어도 웃자. 항상 작은 것에 감사 하자. 꿈이 없어도 좋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위하고 또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연습을 하자고.

얼마 전 신문에서 본 희망세상 만들기 강연 광고, 2013년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샌디에고 제임즈 매디슨 고등학교 강당.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연일 화씨 90도가 넘는 이상고온의 날씨였다. 더위 때문에 찬물 목욕을 자주 한 탓인지 나는 콧물을 닦으며 참 오랜만에 스님의 강연을 들으러 갔다. 일기예보대로 행사 날엔 조금 시원해졌다. 진열대의 책을 사서 사인회를 받는 줄에 섰다. 긴 세월 때문인지 스님이 내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에어컨도 없는 강당에 종교를 초월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였다. “너무 어둡다. 불 좀 켜주세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지. 누가 누가 왔을까. 최미자보살 어디 있어요?” 찾으셔서 맨 뒷좌석에 앉았던 나는 부채를 든

채 일어섰다. 정말 깜짝 놀랐다. “18년 전에 저 보살님 집에서 법회를 하며 샌디에고에 살짝 다녀갔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오래전의 인연을 간단히 꺼내며 스님은 말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인데, 다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터놓고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 외로운 삶이었다. 우습게도 결혼도 안 해보고 자녀도 기른 경험도 없는 스님이 해결사이다. 정신과 의사가 된 스님의 술술 풀리는 답변으로 청중은 한바탕 웃기도 하고, 질문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중을 듣기도 했다. 청중은 한국의 연예인처럼 유명한 스타 스님의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 행복한 삶을 열망하고 있었다.

두 시간 사십오 분 동안 때론 두서 없는 질의자 때문에 지루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샌디에고 전 한인회장(1983년), 이청환 사장이 천 달러를 베풀어 마련된 맛있는 떡을 차 안에

서 먹고, 40여 명의 봉사자들 얼굴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의 시간은 이처럼 또 흘러가는데, 오늘도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희망을 주워 마음에 담아 갔을까. 창문에 스

며드는 달빛을 보며 염주를 꺼내 잠을 청하며 나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굴러본다. 내 분수보다도 낮게 작은 목표를 정해 놓았을 때 삶은 늘 감사하며 편안했다고.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중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 - 013 - 787953(맑고 향기롭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모임에서도 동전 모금통을 배포하고 있으며, 모여진 동전은 지역모임으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지역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전화 말벗 봉사자 모집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결실 이웃 말벗찬 지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에서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편리한 시간에 전화로 봉사에 참여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봉사자 정기모임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

“모금을 위해 사진을 찍고 사연을 컴퓨터에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도움을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사춘기라서 마음을 다칠 수 있으니 손자의 이름이나 얼굴은 공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밑반찬을 후원해 드리고 있는 박정석 어르신을 찾아뵈었을 때 들었던 당부 말씀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손자를 홀로 돌보신다고 하여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면담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자를 염려하시는 할아버지의 자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75세인 어르신은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은 유일한 피붙이인 중1 손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1남 1녀의 자제분 중 하나뿐이었던 장남은 13년 전,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고, 생활고에 견

디다 못한 머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하여 늙은 노부부는 오갈 데 없는 손자를 갖 난아기 때부터 돌봤고, 어느덧 사춘기를 맞은 손자는 유일한 식구인 할아버지에게 뭐 하나 사 달라 조르지 않는 속 깊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3살 된 아이가 왜 먹고 싶은 것이 없을 것이며 갖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을 뿐이겠지요. 보통의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치킨도 먹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놀고 싶고, 여름이면 놀이동산에도 가보길 원할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재롱 한 번으로 가능한 일이 이 아이에게는 이루기 쉽지 않은 소망입니다.

박정석 어르신은 유일한 소득이 친구분의 구멍가게에서 오후 배달

로 받는 월 10만원과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인 까닭에 손자에게 해주는 게 없어 늘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30만원의 수입 중에서 손자의 유일한 요구사항인 학원비 22만원을 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건상으로 보면 어르신은 충분히 기초수급자가 되셔야 하나 생사도 확인하기 힘든 아들과 딸이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손자가 수급자여서 매달 40여만 원이 입금된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르신은 올 초부터 2~3개월에 한 번씩 원자력 병원에서 15만원을 주고 CT 촬영비로 쓰고 계십니다. 9년 전 완치 판정을 받은 폐암이 올 초부터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받은 백내장 수술비로 이 옷에 빌린 25만원은 아직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자가 좋아하는 학원을 마음껏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아파트 거주입니다. 어르신댁을 방문하면서 놀랐던 것은 집이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붕 가운데는 빗물을 막기 위한 장판이 깔려 있고 불룩 내려앉은 천장은 벽에서 천장을 지나 반대편 벽으로 연결된 ‘II’자형 받침목이 겨우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장롱 위에는 빗물받이용 플라스틱 대야가, 거실 한쪽에는 밤이면 어둡없이 들어오는 쥐를 잡으려는 쥐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여러 차례 보수 요청을 해도 나가라는 말만을 반복한다며 어르신은 분통해 하셨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언젠가 헐릴 것이고 무허가 집이기에 고쳐도 별 쓸모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탓입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9월 6일(토), 9월 28일(일) 길상사 경내
- 다음 희망해 모금 및 서명 방법 : 포털 사이트 '다음' - 희망해 - 맑고 향기롭게 검색해서 서명 또는 모금

글 • 강인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촌 여러 곳을 다녀보았다. 그런 발길이 어느새 75개국에 이르렀고 귀국해서는 각 나라에 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갖가지 풍물정보를 나중 사람들을 위해 글로 남겼다. 그러기를 10여년이 지나면서 단순히 기록적인 글만이 아니라, 당시의 느낌을 서정적으로 풀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택하게 된 장르가 수필(Essay)이었고 지양선생님과 인연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늘은 그 선생님이 발간하고 있는 잡지의 창간 기념일이라 국악사랑 '휘모리' 단원과 함께 국악연주로 멋진 축하 무대를 꾸며 드리게 돼 아침부터 이리저리 바빴다.

서구식 악기처럼 잘 다듬은 소리

를 정확히 내도록 만들어진 양악기와 달리, 덜 가공된 듯한 원형의 악기를 즉석에서 두들겨 연주해야 하는 우리의 전통민속악기는 타법이나 치배(연주자)의 정서에 따라 음색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그래서 자칫 정성이 부족하거나 서툴면 시끄럽게 들릴 수 있어 공연 때마다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다.

드디어 행사는 시작되었고 하객들의 많은 시선 속에 곳곳리 풍류 한 마당으로 조용히 가락을 다듬고 삼채, 자진모리로 달군 다음 쌍진풀이와 상. 부쇠의 짝드림을 끝으로 맺기를 하였더니 객석에서 “얼~쑤~!” 흥겨운 추임새까지 얹어 큰 박수로 화답해주었다. 이 정도면 기쁨이 두 배라

그 간의 연습으로 힘들었던 사연쯤이야 말끔히 씻기고도 남으려만 오늘은 웬지 그렇지 못하다. 병원에 갔다던 S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갑자기 걸려 온 전화는 K 단원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S 군이 배가 아파 병원에 갔대요.”

“아니, 어제만 해도 아무 일 없었잖아?”

“.....”

이제 서너 시간 후면 함께 공연을 해야 할 사람이 병원에 왜 갔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이 행사를 위해 달포가 넘도록 가락을 익히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가까스로 레퍼토리를 마무리해 놓았는데...

서둘러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모인 우리는 오직 S 군이 별일 없기만을 바라며, 이제라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큰소리치며 뛰어들어올 것만 같아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꾸 흐르고 하객들은 하나둘씩 입장하고... S 군의 젊은 기량을 앞세워 한바탕 뽐내보려

던 설장구는 아쉬움만 남긴 채 순서에서 생략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정시에 행사는 시작됐고 난데없는 돌발 상황으로 긴장 속에 치른 축하 공연이었다. 그런 우리들의 속사정을 알 턱이 없는 하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와~정말 멋지다’며 연방 찬사와 박수를 보내 주었지만 내 등에선 진땀만 흘러내렸다.

88서울올림픽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풍물(風物)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결코 별난 사람만이 하는 음악이 아님을 깨닫고 국악의 속내가 궁금해 즐거운 마음으로 벗한 세월이 어느새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짧지 않은 인연이 되었다. 그 후 민속풍물의 고향 남원을 찾아 앓은 반은 호남 우도가락으로, 선반(先般)은 좌도풍물에서 그 진수를 터득하며 귀가 열리고 상모 장단으로 온몸이 파도를 탈 때 우리는 감격을 노래했었다.

그런 날이면 선생님은 어김없이 “뒀니 뒀니 혀도 우리 것이 제일 좋

지야~” 하시면서 “해찰 말고 부지런히 치고 또 쳐 내공을 쌓고 속 박자를 만들어 보라” 하셨다.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었지만 가락이 벗어나고 발림이 흐트러질 때면 큰 소리로 호되게 나무라실 정도로 성정이 불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니 나에게 국악을 심어주신 소중했던 인연도 옛 추억이 되었다.

인간문화재 양순용 선생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그 아들인 Y씨가 문화관 광부의 도움으로 <호남풍물전수관>을 운영하면서 요즘은 해외동포와 외국인 특별반까지 개설하여 한층 더 바빠졌다니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지난여름 그 전수관의 대학부 연수까지 다녀온 S군은 나와 수필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문우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대를 이어 맥을 잇고 있는 전수관 Y씨의 제자인 S군을 맞이하여, 살아생전 아버지의 문하였던 내가 힘을 합쳐 합동공연으로 축하 무대를 더욱 빛내 보려 했던 아무진 꿈을 꾸었다.

불가(佛家)의 연기설(緣起說)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맺고 또 슬한 사연들을 엮어 간다. 학습동아리에서, 낯선 여행길에서, 푸진 한마당 굿판에서 세월의 발자국마다 우연과 필연의 궤적들이 차고 넘친다. 모두가 안 보면 보고 싶고 계절이 바뀌면 안부가 궁금한 인연들이다.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던가? ‘모진 놈과는 상종을 말라.’ 했던 말, 설마 설마 하면서 사람 좋아한 탓에 배은망덕이라는 가슴앓이를 겪어야 했던 경우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소중한 귀한 선연(善緣)들이 아흔아홉이라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고마운 인연으로 만나 서로 감사하며 땀 흘려 연습했던 S군! 참으로 귀찮은 그리고 멋진 공연으로 선생님께 더 큰 기쁨을 선사할 수 있었던 S군과의 인연이 못내 아쉽다. 꿈이 너무 야무져 행운의 여신이 샘을 낸 걸까?

글 • 맑은 만남(淸逢)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8월, 9월 숲기행 안내

9월 13일(토) 일정은 경남 통영 미래사와 생태섬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미래사는 법정스님이 효봉스님을 모시고 행자 시절을 보낸 사찰입니다. 10월 4일(토) 일정은 경남 양산 통도사&반구대 암각화 유적지입니다. 10월 참가는 9월 15일(월) 오전9시부터 선착순 40명 전화 접수 받습니다.

- 참가비 : 회원 35,000원 / 비회원 4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전 화 : 중앙사무국 02.741-4696

가

가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 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 교수의 서울대 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

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강남·서초·송파구가 차례대로 매매가 1~3위를 차지했고, 강북·구로·금천구는 도봉·중랑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5개 구에 속한다. 자치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률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강남권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과 관련해 “타고난 잠재력이 이 정도로 막대하고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교 유형(특목고·일반고)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는 41명, 외고 10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0.6명이다.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

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15~6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목고는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 남짓한 연 800만원 이상이다. “학비가 비싼 특목고와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의 3~7배 이상의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의 논문이 말해주는 것은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 오전 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시청 시작, 오전 8:10 0교시가 시작, 오전 9:20~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학교 집으로 돌아 가 쉬어야할 시간도 늦은 데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원 공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등 마는 등 바로 잠에 빠진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가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인 것으로 조사됐다. (News 1)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

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제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 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 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

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교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동법 제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2억 6204만 4000원'이라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SKY가 독식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복지 운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의 입에 발린 소리다.

롤즈(Rawls)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사람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과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가 어떤 능력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 "자연의 복권추첨"이며,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적선하고, 사회는 보상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른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등이란 뜻이 '과정적 평등'이니 '보상(결과)적 평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여기서 덮어두자.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

는 최소한 학생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의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허용될 때 가능한 얘기다.

승자가 결정된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하층은 13.2%에서 11%로 감소했고, 상류층은 20.1%에서 25.3%로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자수성가' 부자는 10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 가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마징가Z, 미래소년 코난, 로봇 태권 V를 넘 놓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화 주인공에 대한 열광은 자라면서 슈퍼 히어로에 대한 열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슈퍼맨, 스파이더 맨, 배트맨처럼 괴력과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신통방통한 능력을 구사하며 하늘을 날고 악당들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자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하늘을 난다고 설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에 고작 4Km밖에 못 걷고, 비행기를 타지 않

으면 하늘을 날 수 없으며, 물속에서도 10분 이상은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슈퍼맨을 비롯한 슈퍼 히어로는 못 가는 곳이 없고,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보일 만큼 막강해 보이니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슈퍼맨, 스파이더 맨, 배트맨 이후에도 슈퍼 히어로물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리만족인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엑스맨, 어벤저스를 비롯한 새로운 시리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슈퍼 히어로물도 새롭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시작되어 미국 대중문화의 한 축

을 이루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기제였던 슈퍼 히어로물은 최근에는 그래픽 노블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만화책이라고 불렸겠지만 이제는 그림이 있는 장르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그래픽 노블은 화려한 그림과 탄탄한 스토리로 슈퍼 히어로물을 성인들의 오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은 영화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 편 영웅이 악당을 때려잡는다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고뇌하는 슈퍼 히어로가 나오고, 고뇌하는 악당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배트맨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편이고, 분명히 악당 편이지만 캐릭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트맨 시리즈의 경우에는 종종 악당이 더 근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트맨의 경우에는 인간의 심연에 잠재해 있는 악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슈퍼 히어로물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에서는 선보다 악이 더 막강합니다. 그래서 슈퍼 히어로가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별로 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슈퍼 히어로물은 많지 않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지만 어쨌든 슈퍼 히어로물의 주인공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슈퍼 히어로물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현실이 그렇게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위험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슈퍼 히어로들이 어떻게 활약하며 평화를 지키는지, 그 과정의 긴장감과 액션을 즐기는 것입니다. 슈퍼 히어로물은 심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 중의 도시는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역시 대체로 명쾌합니다. 슈퍼 히어로가 잠시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주변 조력자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멋진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69년 마블 코믹스를 통해 처음 소개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이번에 처음 영화화 된 작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칭 전설의 무법자 스타로드, 그러나 현실은 우주를 떠도는 그저 그런 좀도둑에 불과한 피터 퀵(크리스 프랫). 뜻하지 않게 갤럭시의 절대악 타노스와 로난의 타겟이 된 그는 감옥에서 만난 암살자 가모라(조 셀라나), 거구의 파이터 드렉스(데이브 바티스타), 현상금 사냥꾼 로켓(브래들리 쿠퍼)과 그루트(빈 디젤) 콤비와 불편한 동맹을 맺고 일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결성한다.'는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좀 더 설명하자면 주인공 격인 스타로드가 '오브'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물질을 우연히 훔치면서 타노스와 로난의 타겟이 되고 다른 주인공들과 함께 오브를 둘러싸고 었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예전의 슈퍼 히어로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영화에는 그렇게 막강한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타로드와 가모라, 드렉스, 로켓, 그루트라는 서로 다른 능력과 캐릭터가 서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능력과 캐릭터를 보여주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팀이 되어 가는 과정이 영화의 주된 재미입니다. 가령 너구리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영특한 로켓이나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임 그루트"만을 반복하는 나무인간 그루트의 캐릭터는 흥미롭고 매력만점입니다.

사실 영화의 설정이 유별나 보이

지만 마블 코믹스의 슈퍼 히어로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나쁜 편과 우리 편이 있는 것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물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 온통 근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허술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설정입니다. 그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팀워크를 맞춰가는 것이 영화의 주된 재미입니다. 영화의 재미는 바로 그 캐릭터들이 선사하는 엉뚱함과 코믹함입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는 자칫하면 뻔한 선과 악의 다툼에서 끝날 영화에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와 유머로 더 함으로써 여느 슈퍼 히어로와는 다른 재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유머가 허술하지 않고 참신합니다. 또한 영화의 캐릭터들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그루트는 겨울 왕국의 '올라프'처럼 매력이 넘쳐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 생각납니다.

그리고 영화 속 카세트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1970년대의 팝 명곡들은 인간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세심한 차이가 영화의 재미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크게 잔인하거나 긴장되지도 않아서 적당히 웃고 적당히 금금해하면서 볼 수 있는, 잘 만든 오락영화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도 좋고, 문제적인 영화도 좋고, 의미 있는 영화도 좋지만, 항상 그렇게 심각한 영화만 보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왁자지껄 떠들며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이 삶의 낙이듯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슈퍼 히어로가 실제로 지구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2시간 동안 답답한 일상으로부터 나를 구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 ...

글 • 이주연(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13명의 외국인 작가의 작품전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서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의 제목만 보면 미국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테마파크가 떠오르지만, 전시의 내용은 ‘universal(보편적인)’ 한 ‘studio(작업실)’을 서울에 갖고 있는 외국 작가들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들 혹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정치와 사회현상을 꼬집는 작품들의 전시입니다. 예술가들이 약 1년간 다른 나라의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서 그 나라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작업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유목민처럼 작업실을 이동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방식이 예

술가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흐름이기에 지은 제목입니다.

독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체코, 네덜란드, 영국, 인도, 스페인에서 와서 우리나라엔 짧으면 1년 이상, 길면 20년 이상 머물고 있는 작가들로 그들의 다양하고 기발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어 아주 재미있으며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깜짝 놀라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국인의 입장으로 당연히 한국문화에 대해 가질 수밖에 없는 문화적 환상(culture fantasy)과 그로 인한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도 엿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보고 느끼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열세 명의 작가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작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귀화를 해서 이젠 한국인이 된 ‘알프레드 23 하르트’라는 작가입니다. 그가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총 네 점이었는데 저는 오늘 그중에서 ‘멈춤의 시간’이라는 텍스트 작품과 ‘청자 뮤즐리’라는 설치작품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자 뮤즐리’의 뮤즐리는 요즘 트렌디하게 전 세계적으로 즐겨 먹는 씨리얼 같은 것이고, 둘의 차이점을 들라 하면 씨리얼은 곡물을 가공해 다양한 모양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며 뮤즐리는 그냥 통곡물을 건조시킨 상태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 작가가 작품에 사용한 재료가 바로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그냥 길에서 발견한 사물(found objet)입니다. 전시장에는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풍 궁전의 플라스틱 지붕 위에 청자 조각을 하나씩 얹어놓은 것

과 청자 파편들을 뮤즐리처럼 밀폐 용기에 담아두거나 혹은 작은 냉장고에 넣어놓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시된 작품들을 보노라면 ‘저 하찮은 도자기 조각들을 밀폐용기나 냉장고에 넣어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이라도 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이 ‘청자 뮤즐리’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오래 지켜나가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너무 홀대하고, 서양풍의 때로는 국적 불명의 이상한 것들을 치켜세우며 좋아하는 현상을 꼬집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의 또 하나의 작품인 ‘멈춤의 시간’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텍스트만으로 된 이 작품에서 작가는 원래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할리우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1912년 LA 카운티에 세워진 ‘영화제작사—Universal Studio’의 창립자이자 독일인 ‘칼 램

틀레에게 헌정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자신의 모든 예술적 행위가 멈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영화보다 더욱 잔혹한 세월호 현실을 대면하며, 어떤 도발적이거나 냉소적인 표현도 할 수 없어서 단편 영화 ‘For Lem Lee’도 잠시 침묵 속에 묻어둔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공감하며, 계속되고 있는 이 고통의 끝이 내일이기보다 오늘이기를 묵도한다.”

이 작품과 ‘청자 뮤즐리’를 감상하며 저는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익숙하며 평범하다고 보고 느꼈던 것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달리 보고 느끼는 작가. 심지어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전

생에 한국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던 작가이니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아직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과 많은 국민은 국가와 언론을 불신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독일 작가의 한국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만큼인지 가늠하다 보면 작은 감동마저 밀려옵니다. 또한,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올해 여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알프레드 23 하르트’라는 작가와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데, 아마 오랫동안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글 • 심정희(독자)

우리 집 뜰 안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다. 좋아하는 나무를 키우는 밭 한편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작은 연못을 마음먹고 만들었다. 가지마다 나뭇잎이 반짝일 때 작은 연못에도 고운 수련이 환하게 오색으로 피어오른다. 오래전 일이다.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에서 형형색색의 수련 꽃을 보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련을 키워 보았지만 잘되지 않았다. 커다란 오지그릇에 진흙을 절반 정도 담고, 수돗물을 채워서 진홍빛 수련을 한 촉 심었는데 굵은 꽃대는 점점 가늘어지고 새 촉을 볼 수 없었다.

어느덧 시골에 내려와서 나무를 키웠던 지 꼬박 6년이 지나서 소원이던 시골집을 오두막처럼 지었다. 작고 아담한 새 거처에 소박한 삶을 들여 놓고 즐거운 전원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꿈같이 행복하고 보람이었다.

이듬해 봄이다. 서울 사는 작은 오빠한테 연못을 하나 파고 싶다고 의논드렸다. 들레석에 들어갈 자연석도 많은 분량이 필요하고, 연못 밑바닥에 깔아 놓아야 할 방수용 두꺼운 비닐도 한 박스, 자재가 많이 들어간다고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다. 미적거리 없이 이리 저리 자재를 찾아서 다 구입해 놓고, 신이 나서 연못 파는 날을 하루 잡았다. 그 참에 서울 작은 오빠가 일부러 내려 오셔서 현장 감독을 하셨고, 덕분에 어렵고 힘든 연못 만드는 작업이 훨씬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었다. 큰 장비차가 한쪽에 수북하게 파 놓았던 황토 진흙더미는 다시 연못 안에 잘 다져서 깔아 놓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맑은 물을 가득 채워주니 소원이던 작은 연못이 보기 좋게 완성 되었다. 별로 크지 않은

자그마한 연못! 얼마나 갖고 싶었던 꿈이었다. 이 연못에 내가 좋아하는 수련 꽃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겠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작은 연못이 오빠의 도움으로 쉽게 성사되어 기뻐다.

연못에 채워 넣은 맑은 물은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오지그릇에서 배실거리던 진홍빛 수련을 맨 먼저 빨 속에 옮겨 심었다. 그 후 여러 색의 수련을 더 구해서 심었는데 처음 그 꽃이 지금 까지도 꽃송이가 크고 진홍 비취색으로 바람결에 둥실둥실 꽃물결이 곱다.

백련은 촛불처럼 고요한 모습이다. 꽃대를 길게 올려 한곳에 소복하게 피면 영락없이 불전에 하얀 촛불을 올리는 것처럼 단아하고 맑디맑다. 수련 꽃을 좋아하면서 마음 설레게 하는 황수련은 샛별을 닮았다. 서울 나들이를 하고 의왕시 청계동 수생식물원을 돌아오는데 전에는 볼 수 없던 노란 황수련을 보는 순간 멈춰 섰다. 백련이 보기 드물게 귀하듯이, 황수련도 귀한 품종이라고 했다. 바로 내 연못에 한 축을 들여와서는 유심히 살펴 키우는데 이제는 많은 축을 품고 야생화처럼 실한 꽃대를 수없이 달아 올린다. 아침나절 노랗게 피는 황색수련은 새벽하늘 영롱한 샛별처럼 연못 안에 환한 빛이 녹는다.

수련 꽃은 질 때가 너무나 아름답다. 사나흘 반복해서 물위에 둥실 떠있는 등불처럼, 물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별빛처럼, 선하고 곱다가 물러설 때가 되면 꽃잎을 한쪽도 남김없이 다 모아서 물 깊숙이 잠을 자는 듯 제 모습을 말끔히 하여 누워서 진다. 수련 피는 연못에 긴 겨울이 지나고 두꺼운 얼음장이 풀리고 나면 어디선가 개구리와 도롱뇽이 비릿한 물 냄새를 찾아와서는 개구리는 방석처럼 수북하게 알을 낳고, 도롱뇽은 뾰족하게 올라오는 수련 축에 꼬불꼬불 감아서 알을 낳는다. 그러나 얼마 뒤 잉어란 놈들이 긴 동면에서 깨어나면 허기진 배를 신나게 채우고 만다. 봄 햇살이 살금살금 길어지고 더워지면 수련 잎은 파랗게 퍼지고 개구리들은 기리끼리 모여 앉아서 일광욕을 즐기며 논다.

선한 꽃, 수련이 보고 싶어서 많은 정성을 쏟았고 적당한 환경을 만들었다. 아침이면 파란 잎 사이로 수십 송이의 수련 꽃이 수줍은듯 맑게 피면 난 어느새 연못가에 나와 앉아서 흥얼흥얼 향기에 취한다. 개구리, 도롱뇽이 다슬기 같은 미생물들도 거기가 살기 좋은 터전인줄 알고, 오순도순 모여서 사는 모습이 놀랍고 신비스럽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뜻을 함께해줄 작가를 모집합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뜻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첫 창간하여 법정 스님의 글을 비롯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글, 지역모임의 활동 안내와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 길상사의 행사 및 법회 등의 소식을 담아 회원 및 신도를 비롯하여 길상사 방문객,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공감하여 마음을 함께해 줄 여러 작가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 부문

- 창작 문학시, 수필, 에세이, 칼럼, 평론, 카툰, 사진, 그림
-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기획 연재물(최소 3개월)

• 모집 안내

- 회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법인사무국 전자우편(clean94@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시는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작가의 의함에 따라 연재물은 원고료를 지급하며, 회원이나 독자의 글은 채택될 시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띄어쓰기 주의, 컴퓨터 용어, 과한 한자 사용, 종교 비판 및 폄하는 피해 주십시오.
-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말고 향기롭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 말 까지 대상자를 공모하여 10명을 선정하여 1차로 1,650만원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백혈병, 치아 상실, 난소암 등으로 투병 중인 분들입니다. 수술 이후 및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상자 모두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 하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 참여하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9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에 본모임도 천연화장품, 리폼용품, 먹거리 판매 부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말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많이 봐주세요.

말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활동 소식과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와 모바일 시대라 그런지 회원님의 홈페이지 이용이 예전에 비해 저조합니다. 회원님과 지역 사무국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우편작업/2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28일(일)/오전 11시~12시/설법전/방송인 이계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말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4,5,11,18,19,25,26일)/김치(7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1,15,22,29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4,21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화원(차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셋째 일요일(21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둘째 일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넷째 화요일(23일)/오후 1시 30분/잇달타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6일(토), 28일(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3,10,17,24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세계일화실, 비누는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2,16,23,30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28일(일)/길상사 경내
- 월곡청소년 센터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3,17일(수)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13일(토)/통영 미래사8생태 섬
- 2014년 사랑나눔바자회/27일(토)/오전 10시~오후 4시/성북초등학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말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자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맏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맏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맏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맏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벗봉사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1,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8월부터 진행 예정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맏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추석합동차례

- 일시: 9월 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천일기도 회향

- 일자: 9월 16일(화)
-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봉정암 사리탑 입시기도

- 일자: 9월 29일(월)~30일(화) 1박2일
- * 시간, 장소 추후에 홈페이지 공지

2015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

- 일자: 8월 6일(수)~11월 13일(목)
- 시간: 오후 2시~4시
- 장소: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 일자: 8월 11일(월)~11월 5일(수)
- 시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천일기도 입재

- 일자: 10월 1일(수)
- 시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불교입문 29기 개강안내

- 일자: 9월 17일 개강 / 매주 수요일(12주 강의)
- 시간: <주간반> 오후 1시 40분
<야간반> 저녁 7시 30분
- 수강료: 7만원
- 문의: 불교대학 02-3672-0036

다라니기도

- 일시: 9월 6일(토) 오후 8시~10시
- 장소: 극락전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9월 13일(토)
(오후 9시~다음날 새벽 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9월 13일(토)
(오후 8시 30분~다음날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 보호대

사랑나눔 연합 바자회

- 일정: 9월 27일(토)
- 장소: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 * 9월 20일까지 바자회 물품 모금합니다.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천일기도 입재	10월 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중앙절	10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0월 4일	오후 8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10월 11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11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10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1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0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0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방송인 이계진 초청 행복특강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불자의 삶'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 **9월 28일(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행복특강을 실시합니다. 올해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이계진(맑고 향기롭게 전 이사) 님을 초청하여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불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뉴스 진행자, 아나운서, 방송인, 소설가, 문인, 국회의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과 만나던 그는 지금은 두 손자의 할아버지이며 주말농부입니다. 근래에는 국방FM 정책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 sbs 좋은 아침에서 귀농 생활에서 찾는 행복과 손주 키우는 기쁨을 대중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계진 초청 행복특강에 참석하시어 불자로서의 삶의 지혜와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에 초대합니다.

2008년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눔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덕수교회와 성북동성당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연합바자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칠 년 째 맞이하는 이번 바자회는 **9월 27일(토),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수익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뜻깊은 화합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천 시에도 바자회는 열립니다.)

